

새에덴교회, 제64주년 6·25참전용사에 報恩

시카고한인회 공동주최로 시카고에서 행사 후 새에덴교회에서 열려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는 지난주일 오후 7시 새에덴교회 3층 프라미스홀, 국내 참전용사들과 재향군인회와 국회와 경기도 등 각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하는 '제64주년 6·25전쟁 상기 및 참전용사초청 보은예배'를 동교회 주관, 보은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6·25유공자 후원으로 드렸다.

올해로 8년째 6·25전쟁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8년째 주관하면서 민간교회와 호국보훈에 앞장서고 있는 새에덴교회는 이날 이철취 장로(새에덴교회/예비역 대장)의 인도로 기수입장 및 환영 파파레, 한국참전용사 입장이

있을 후 1부 예배가 진행되었다.

이도상 집사(새에덴교회/예비역 준장)의 대표 기도, 서범석 장로(새에덴교회/전 교육부차관)의 성경봉독, 새에덴교회 찬양대의 특별찬양, 소강석 담임목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셨습니다”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소목사는 설교에서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 속에서 참전용사들의 조국 사랑의 희생이 있었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행사는 박주옥 목사(새에덴교회/백석예술대학교)의 특송으로 애국가 제창에 이어 서광

수 장로(새에덴교회 장로회장/예수대총장)가 환영사를 했고, 격려사는 박세환 회장(재향군인회 회장), 박희보 회장(6.25참전유공자회), 황진하 의원(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장), 이종찬 전 국정원장, 백군이 국회의원, 장충식 이사장(단국대학교)순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류오희 회장(6.25참전유공자회 경기용인지지회 지회장)은 새에덴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 소강석 목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준비한 김중대 장로(새에덴교회, 예비역 제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보은예배와 행사는 안명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열린 국내 참전용사 초청 『제64주년 6·25전쟁 상기 및 참전용사초청 보은예배』는 앞서 새에덴교회와 시카고한인회가 공동주최로 시카고에서 열린 『제64주년 한국전쟁 용사 초청 보은행사』에 이어 국내행사로서 매년 6월이면 새에덴교회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호국 보훈의 행사이다.

금년에는 미국 시카고한인회(회장 서정일)의 요청에 따라 미국 중서부지역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현지에서 방문 위로하고, 초청하는 보은행사를 6월 13~14일 양일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라벨연방보훈병원과 웨스틴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소강석 목사를 단장으로 한 20명의 새에덴교회 감사사절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또한 14일 오전 11시, 웨스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4주년 한국전 참전 용사 초청 보은행사'에서는 6·25 참전 미군 용사와 가족 400명을 포함해 시카고한인회, 새에덴교회 관계자 등

총 500여 명이 참여하였는데, 새에덴교회가 워싱턴과 라스베이거스에 이어 세 번째 해외에서 초청하는 보은행사로서 금년에는 시카고한인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였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서신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활기찬 민주주의와 함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freedom) 안에 살고 있다”며 “우리는 목숨 바쳐 싸운 미군과 동맹국 그리고 수백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약한다”고 전했다. 팻 킨 일리노이주지사도 이날(6월14일)을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날’로 선포하고 관련 초청행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시카고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문선 목사) 주최로 소강석 목사 초청 『2014 미주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가 6월 11~13일까지 3일간 시카고 웰링타운내 그레이스교회(원종훈 목사)에서 열렸다. 금번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는 시카고 한인교회 역사상 180여명의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의 본질회복과 부흥과 연합을 위한 실질목회 토론과 결단의 시간을 가진 후 이날 새에덴교회 3층 프라미스홀에서 제64주년 6·25전쟁 상기 및 참전용사초청 보은행사를 성대하게 가졌다.

사설

국회 인사청문회 문화부터 바뀌야 한다

국정방해 수단과 정쟁의 장으로

타락한 양아치 식 갯판 청문회는 안 돼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구조적 모순과 누적된 악습, 고착된 부도덕성과 부정부리 습성 등 고질적 병폐를 적결하기 위해 국가개조(國家改造) 이상의 근원적 처방과 대수술이 불가피 해 졌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국가개조와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명제를 실현키 위해 정부부처의 통합합신설 조직개편과 개혁 작업의 조타수로 새로운 총리를 발탁 임명과 국무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됐다.

국회 임명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제정에 의해 순차적으로 임명해야 되는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국회에서 주요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檢證:verification)하기 위해 공개청문회에서 특위위원의 질문에 청문대상자가 답변하는 것을 국민이 듣는(Hearing) 것이지 청문대상자를 범죄피의자 수사(搜查:inspect)나 적군포로를 심문(審問:interrogation)하듯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행해지는 청문회는 공직후보자 검증에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정권에 흠집 내기와 야권의 일방적 요구관철을 위한 흥정과 정쟁(政爭)의 장(場)으로 악용돼 왔는가 하면 일부 불지각한 국회의원이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폭언과 욕설 등 행패(行狀)를 벌이는 양아치식 국판이 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청문회가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이탈, 도덕성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공직후보자의 인권은 물론 보호받아야 할 사생

활을 발가벗기고 가족까지 망신을 주는 등 인권유린과 인격모독, 명예훼손 등 범죄적 행태가 제약 없이 자행됨으로서 청문회가 아니라 인재(人材)의 도살장으로 변질 됐다.

전과(前科)가 주렁주렁 달리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금배지 단무지한들이 마치 도덕군자나 성인인양 공직후보자에게 온갖 허물을 만들어 내고 없는 죄(罪)도 뒤집어 씌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기(氣)를 죽이는 양아치 식 청문회, 공산당 식 공개비판 풍지

청문회특위위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부터 우선

검증받아야 마땅하다

심판대회 무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오죽하면 청문회 개최에 앞서 청문회특위위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부터 심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과 요구가 들끓겠는가? 국회는 청문회 무용론(無用論)과 청문회 해악론(害惡論)에 스스로 답을 할 의무가 있다. 청문회장 난동으로 일약 스타가 된 아무개처럼 명패나 집어던지고 폭언 폭설이나 퍼붓는 청문회는 청문회라 아니라 양아치 폐의 난동장(亂動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청문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청문회 제도를 폐기하든가 관훈토론 같은 민간단체의 공개 검증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대기협 2014정기총회, 신임이사장 엄영수 목사 선출

촬영하면서 재능기구를 더욱 살려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힘쓸 터!



엄영수 목사

대한기독교서진가협회 이사장

개최되고 현 대기협 정관을 이사

와 이사장 체제로 개정한 후 이

사장 선출에서 엄영수 목사(대광

교회)를 만장일치 이사장에 선출했다.

신임이사장 엄영수 목사는 지 금까지 이상중 목사, 이진호 목사, 김종욱 목사 등 직전회장께서 지난 16-17 일 1박 2일 동안 전북 임실 동신수양관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고 현 대기협 정관을 이사

또한 대기협은 앞으로 기존처럼 모이고 촬영에 힘써 왔듯이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이 좋은 달란트인 재능기구를 살려 섬기고 봉사하는데 구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년 중 행사계획 중에 사진 활동을 자주 가지면서 봉사활동에 무게를 더 두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 이사장은 협회의 운영 계획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며, 대거업 발전을 위하여 회원들의 열정적인 마음이 기대가 된 다하고 협회 발전을 위해 회원여러분이 맡겨주신 중책에 힘써 보



답하겠다며 다짐했다.

한편 대한기독교서진가협회는 전국에 많은 지부와 해외에도 많은 사진작가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각 지역에서는 반개모임을 갖고 전국에 있는 명소를 찾아 아름다운 작품을 담아내고 있다.

본협회의 홈페이지는 <http://www.christianphoto.co.kr> 이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목총회 2014 한국경목총회 제37차 정기총회

표어 : “대한민국 13만 경찰과 60만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1절)

전국 경목위원들의 사역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빌며 한국경목총회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재 목사
함께하는교회



이호은 목사
화정총현교회



홍항표 목사
사랑의교회

임원명단

- 총회장 이상재 목사
- 중경총회장 조용목 목사
- 직전총회장 허식 목사
- 부회장 이정준 목사
- 부회장 이창식 목사
- 부회장 남규열 목사
- 부회장 김옥환 목사
- 부회장 주광삼 목사
- 협동총무 박용숙 목사
- 부사기 전남호 목사
- 회계 임미상 목사
- 감사 이호은 목사
- 지도고문 지원철 목사
- 지도고문 권다윗 목사
- 정가남 목사(경찰기독일보/저저스타임즈언론대표)
- 전전총회장 엄신형 목사
- 부회장 김준순 목사
- 부회장 김창룡 목사
- 부회장 유철규 목사
- 부회장 강년선 목사
- 부회장 안기석 목사
- 총무 홍항표 목사
- 협동총무 임혜숙 목사
- 회목사기 오성규 목사
- 부회계 정운선 목사
- 감사 홍철표 목사
- 부총무 조연기 목사
- 사기 박양우 목사
- 회목부사기 최희목 목사
- 지도고문 황원찬 목사(대신대학원총장)
- 지도고문 박한규 목사

아 래

- 정기총회 장소 : **대광교회**(김진수 목사 시무) 자세한 것은 아래 사무총장 홍항표 목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중교통과 전철 자가용을 이용할 시)사무총장께 문의해 주십시오
- 일시 : 2014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시간 엄수해주세요
- 참고 : 경찰기독일보 지저스타임즈에서는 본 경목총회 마크가 새겨진 **기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한정증 인본** 발전을 위하여 **기자증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명함사진 1장, 전화번호, 차량스티커발부 차량번호와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 문 의 : 사 장 홍항표 목사 **010-7585-1955**, 언론대표 발행인 정기환 목사 **010-5468-6574**
- 홈페이지 사이버 경찰청 주요사이트 한국경목총회 (www.gapck.or.kr)

경찰선교에 관심이 있는 경로위원을 초대합니다.(이사·중앙위원)

홈페이지 사이버 경찰청 주요사이트 : 한국경목총회

110-74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교회관

한국경목총회 전화 02)583-1955 팩스 02)868-0652

일자리 창출과 구정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구청장

교회의 공간을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는 작업장으로
남구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구에서 지원 약속!



인천시 남구 구민들과의 90가지의 공약을 민선 6기에 모두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다해 보답하겠다는 박우섭 구청장, 박 구청장은 두 아들로부터 자상한 아버지요 섬기고 있는 은혜감리교회(이종복 목사)에서도 부인 이미영 권사와 함께 신앙이 돈독하기로 소문이 나 있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범가정이다.

게다가 박우섭 구청장은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도 포부가 남다르다. 구민들에게 평안함을 주며 자상하게 인품을 가진 선교사며 전도사가 되고 있다. 더구나 지역 교회와 남구기독교연합회와 교구협의회, 신우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구청장으로 평평이 나 있다.

박우섭 구청장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남구청장을 역임하였고, 2010년 선거에서 다시 구청장에 당선되었으며, 이번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민선 6기에 승리하여 연임하게 되었

다. 박 구청장은 내조하는 이미영 여사(은혜감리교회 권사)와 함께 축복받은 남구청 구민들이 되기를 바라고, 구민이 잘 살 수 있게 해 달라며 새벽기도를 해오면서 구정에 힘쓰고 있다.

이미영 여사는 박 구청장에 대해 믿음생활이 열정적이며 낙천적이며 부지런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남편이라고 자랑한다. 아들형제를 두고 있으며, 두 아들은 아버지를 친구같은 아버지로 잘 따르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만족하게 여긴다며 좋은 아내라고 한다.

민선 6기에 당선한 박우섭 구청장은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가 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두 가지 분야 가운데 1.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충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주력하면서 남구청이 인천시는 물론 전국에서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마련해 왔다고 한다.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남구청이 되겠다.

박 구청장은 이번 공약 중 핵심구호가 더 많은 일자리, 더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부를 만들겠다. 또한 일자리를 계층별로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어르신들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중요한 것은 복지를 한 차원 더 높여서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계획하고 있

다. 지역공동체가 복원되어야 복지문제도 해결되며, 삶의 질도 높아진다. 이미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통두레 운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지역의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범죄안전문제 등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에서 지원하는 일들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남구는 전체예산이 약 4,000억 중 복지예산이 58%인데 2,300억 원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사회적 기업센터 등에서 남구의 사회적 기반이 약 30여 곳이 되는데 이 일을 더 확충해 나가고, 노인 어르신 일자리는 3,800명 정도가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나기지만 남구 노인인구가 50,000명이 조금 넘는데, 여기서 10%정도 5,000명 정도의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우선 약 1,200명 정도의 어르신 일자리를 더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 도시인데 학습을 통해서 학습형 일자리를 통해서 강사 등을 양성하여 새롭게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 일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은퇴한분들, 50대 후반들을 위한 일자리이다. 아울러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와 함께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하고 방송PD,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방송PD 교육을 할 계획이며, 미디어 활동과 양성교육을 해 나가기에 있고, 문화나 방송 이런 방향으로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있다.

박우섭 구청장은 민선 6기에서 90개의 공약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이다. 남구는 70여 군데가 재개발구역이 있는데, 그 중 23곳은 이미 해제가 됐고, 2-3곳은 추진이 완료되었지만, 아직도 50여 군데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런가하면 수익성이 없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곳은 빠른 시일 내에 해체를 하고, 해체할 경우 그동안 들어간 매몰비용이 문제이다. 하지만 이 비용을 정부에서 70%정

도 시장에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국회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 해제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수익성을 높여서 추진하면서 기반시설로 부담을 시에서 또는 구에서 하고, 사업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이 부분은 건설 경기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구청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건설경기와의 연결을 지어 판단해 나갈 방침이다.

크리스천으로서의 박우섭 구청장의 처음 신앙생활의 동기는?

박우섭 남구청장은 1954년 충남 예산에서 출생하여 당진 초등학교를 거쳐 용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민주화운동으로 22년 만에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수료하고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후 인천 남구청장에 재선되어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하지만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걸은 박 구청장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주님을 영접했고, 이미영 권사는 결혼하고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여 두 분이 권사로서 교회를 열정을 다해 섬기고 있다. 특히 남구지역은 교세가 강한 지역이며, 인천에서 전통적으로 큰 교회들은 남구에 많다. 특히 남구지역은 종교적인 열정이나 교세가 강하고, 신앙심도 아주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남구청은 기독교에 지원되는 것은 없다. 그전에 도움을 드린 것은 기독교 역사박물관 등에 국비나 구청에서 조금 지원한 적이 있다. 기독교단체에 지원한 것은 없지만, 교회에서 노인 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나 교회에서 어린이 집이나 복지시설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에 도움을 드린 적이 있다. 따라서 남구기독교연합회와 구청신우회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구의 일들을 함께해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외 조금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공간들이 있어서 복지와 관련된 일들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구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육아나눔터를 할 수 있으며,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잠시잠깐씩 아이들을 돌보며 키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경우 구는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교회에서 복지나 문화와 관련된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남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 모 장로교회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구에서 거기에 어르신 일자리들을

제공하는 작업장을 교회와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남구지역 구민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에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구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남구청은 신우회가 선교활동에 힘쓰며 기도하고 있고, 남구교구협의회와 같이 매주 화요일 12시 구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특히 남구교구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매월 한 번씩 저녁에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매주 화요일 정오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신우회가 활성화되고 있어 남구지역은 물론 인천 성시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제2차 찬송가 대토론회 일정 확정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찬송가대책위원회(위원장 안영로 목사) 제3-3차 회의가 지난 6월 17일(화) 오후 한교연 회의실에서 열려 제2차 찬송가대토론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찬송가대토론회 이후 (재)한국찬송가공회에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제안을 해 움에 따라 이 문제를 심도있

게 논의, 제2차 찬송가 대토론회 일정을 확정했다.

제2차 찬송가대토론회는 “한국교회 찬송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7월 15일(화) 오후 2시에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 21세기찬송가의 문제점(가사, 작곡, 저작권에 관하여), 2. 행정적 조직 및 운영관리에 문제점(찬송가 관련, 법인

화, 수익금 사용에 관하여)으로 나눠 한국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토론토론토 했다.

또한 (재)한국찬송가공회와 한국찬송가위원회측으로부터 발제자 각 2인씩 추천받기로 했으며, 발제 및 질의응답에 선정된 사람은 주제 및 토론의 핵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되, 내용의 분량은 제한이 없으며 발제는 5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국제자연치유선교학술회 봄 학기 세미나 시작

국제자연치유선교학술회는 2014년 봄 학기가 시작되어 매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강의가 진행됩니다. 지역선교를 위해 침술·카이로프랙틱·부항·홍채학·경락수기요법·자연건강 효소·쑥뜸·약초를 통한 경험방·고혈압·당뇨 등 난치성질환 예방·자가 진단 테스트·항암 등 교육으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돌볼 수 있고 선교사역에 활력이 되는 귀한 강의가 시간 마다 진행됩니다.

한 교회에 두 세 사람만이라도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이웃초청 전도에 큰 활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선교사 지망생들은 꼭 받을만한 선교에 필수적인 자연치유 교육입니다. 특별히 미자립교회 재정확보와 목회자 노후 대책 방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교회 두 명 정도씩만 참석해서 전문사역자 훈련을 받아 놓으면 선교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소 : 4호선 대야미역에서 큰길 쪽 200m지점 대성프라자 4층 새중앙교회,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657-1 많은 참석바랍니다.

국제자연치유선교학술회장
허 식 목사 010-3348-6374
국제문화예술선학원장 김창룡 목사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임동보수총무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에스페이스 B02호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임동보수총무회장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30

153-80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02)3281-317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임동보수부총무회장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131-221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성기 목사
본지 상임이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139-869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임동보수 서기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702-735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
☎070)4220-7735, 053)741-7732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임동보수 회의록서기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29-81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031)315-8290

평화교회 기도원 개원감사에배로 하나님께 영광!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세워진 평화교회 기도원

대한예수교장로회 평화교회 기도원(원장 임금순 목사, 담임 정중환 목사)은 지난 6월 14일(토)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소재에서 기도원 개원감사에배를 드렸다. 중부노회장 이영근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최형태 목사(부노회장)가 기도하고, 운동하목사의 율동과 강신숙 목사의 특별찬양이 있은 후 개혁총연 증경총회장 이강익 목사는 마 16:13~20절을 인용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이 목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부족한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세상에 쩌들어서 말씀이 없는데 안타까움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힘을 따라고 했다.

이강익 목사는 또 신학교를 20년



을 하였지만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배움을 바로 쓰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교회와 기도원을 개원하는 원장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부흥과 역사와 일어난다고 했다.

게다가 우리 학교 나온 사람이 예언하고, 기도하고, 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강도와 절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

와 물질을 받치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중부노회장 이영근 목사가 개혁총연 서남부대회 중부노회의 권위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성부 성

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설립 인허가 증명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가 축사를, 평화기도원 원장 임금순 목사, 담임 정중환 목사가 인사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평화교회 기도원을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어 증경총회장 이강익 목사 축도로 마쳤다.

목회자사모세미나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제20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6월 16일(월)~19일(목)까지 은혜 중 종로

‘제20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2014년 6월 16일(월)~19일(목)까지 서울 예정교회(담임 설동욱 목사)에서 진행됐다.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가 공동주최하며 CTS7독교 TV, CBS, EBS, 기독교방송, 국민일보, 예정교회가 공동후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모한 전주 ‘함께하는교회’ 최덕임 사모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목회경험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편하게 목회하는 것 같고 많이 고난 받고 연단 받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것 같아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저의 게으름과 사명감을 일깨워주셨고 그래서 큰 열정을 얻어 가지고 갑니다.”라고 했다.

고양시 ‘영은교회’ 김화순 사모는 “4년 째 참석하고 있고 일 년이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매년 기도원에 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쁜 목사님이 먼저 앞서서 세미나에 접수하라고 하실 정도로 기다려지는 세미나이며 꼭 신청 온 것처럼 편안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은혜 받고 새 힘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예일중앙교회’ 이명자 사모는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이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지고 사모님들을 사랑하시는 그 감동이 전달이 되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돌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라고 했다.

이 외에도 ‘꿈이있는교회’ 이경숙 사모, ‘은혜찬양교회’ 박정금 사모, ‘주원교회’ 홍혜정 사모, 등은 사모세미나를 위해서 담임목사님이 꿈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힘든지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해주는 예정교회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제20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목회현장에서 참았던 서러움과 아픔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앓을 가려 주체할 수 없었고, 성도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마음껏 하지 못했던 웃음이 터져 나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으며 남편 목사와 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로 뜨거웠다. 현 시대 주요이슈는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을 치료하는 힐링(Healing)인데,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목회사역에 지친 사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었다.

특히 2014년 ‘제20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8월에 진행하던 사모세미나를 6월로 앞 당겨 진행했는데 너무 덥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좋은 날씨였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모와 섬기는 봉사자들이 함께 만족한 세미나였다.

설동욱 목사(서울 예정교회)는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를 사랑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사모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석하신 사모님들이 좋은 날씨를 마음껏 누리고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찬미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세미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했다.



총회, 현대 수 리조트와 양해각서 체결

콘도와 유럽형 팬션등 다양한 시설 이용 가능

총회(총회장 최순영목사)와 주식회사 현대 수 리조트(회장 이수원장로)는 지난 27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총회는 교단 산하 지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목회 환경에 맞춰 현대 수 리조트가 보유하고 있는 속초 소재 콘도와 유럽형 팬션(둔내소재)등, 휴양시설을 교회가 착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은 그동안 수 리조트가 한국교회에 제정한 착한 가격의 회원권 분양(10년 154만원)과 함께 수 리조트가 보유한 시설을 활용, 교단

의 총회와 세미나 및 노회와 교회의 각종 행사시 현대 수 리조트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착한 가격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총회장 최순영목사는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가 현대 수 리조트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적극 활용, 수련회를 비롯해 각종 모임이 활성화 되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총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현대 수 리조트는 교회가 수련회등 각종 모임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착

안 154만원에 10년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다. 이 회원권의 구입 시 수 리조트가 보유한 콘도와 유럽형팬션은 이용 일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더불어 전국 50여 곳의 콘도 및 팬션 제휴시설로 되어 있어 하나의 회원권으로 워터파크 등 놀이 시설과 전국의 호텔 등도 예약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 현대수리조트 입회 신청서를 원하시는 개인 단체는 070-8230-0034, 010-5468-6574 번호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교연 여성위, 서울역 밥퍼 봉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은 지난 6월 14일(토) 정오에 서울역 나눔공동체(대표 박종환 목사)에서 노숙인을 위한 사랑의 밥퍼 급식봉사를 하며 가난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한교연 여성위원회(위원장 허혜숙 권사)가 주관한 이날 사랑의 밥퍼 행사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예배공동체인 주빌리교회 청년 20여 명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 3백여 명과 예배를 드린 후 이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했다.

이날 예배는 박종환 목사의 사회로 주빌리교회 크리스틴 집사의 기도

와 한교연 여성위원회의 특송, 사회문화국장 신광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신광수 목사는 ‘주 예수를 믿으라’(사16:31) 제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다같이 천국가자”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기쁨을 고대하면서 지내시길 원한다”고 전했다. 예배를 마친 후 한교연 여성위원들은 손수 지은 따뜻한 밥을 노숙인들에게 대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자들과 냉면파티 열어

한 수용자는 냉면을 통해 행복함을 찾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경북 북부 제 3교도소(소장 조기룡)에서 6. 28일(목) 경남 창원군에 있는 주민교회(정석중 목사시무)의 목사와 성도들, 창원 예향교회(홍춘기 목사시무)목사와 성도들의 후원과 창원군 자원봉사자협의회 손길들 통해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냉면 day 행사를 개최했다.

경북북부 제 3 교도소의 조기룡 소장은 “냉면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사랑을 주시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교정을 통해 수용자들이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용자들의 인권과 교정 교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번 수용자 냉면 day를 위해 3년째 헌신을 다해준 창원주민교회의 정석중 목사는 금년에도 수용자들에게 냉면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고 했고, 창원 예향교회의 홍춘기 목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동창을 하면서 함께하여 준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

예향교회에서는 이기학 목사에게 성경책이 필요한 수용자들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고급 성경책 20권

을 기증했다. 또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봉사로 함께하여 준 창녕군 자원 봉사자협의회

의 이유경 회장은 교도소에서 봉사를 하므로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면서 봉사를 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면서 감사했다.

수용자 김00는 “여름철이면 가족들과 함께 즐겨 먹곤 했는데... 지나고 보니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며 지난날을 반성하며 새롭게

각오를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사역을 하는 이기학 목사의 주선으로 진행 되었다.

포항에서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이기학 취재부장



오는 7월 ‘FREEDOM WALK 2014’

LA에서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까지 총40마일 걸어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과 나라에 충성을 다할것을 맹세합니다. 스카웃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내 자신을 신체적으로 강건하고 정신적으로 깨어있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것을 다짐합니다.”

KOREA TOWN LA총사단 보이 스카웃 TROOP777(대장 조셉 신)은 다음달 19일(토)부터 22일(화)까지 LA 한인타운에서 출발해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 도착하는 총40마일 구간을 걷는 ‘FREEDOM WALK 2014’ 탈북민 구호 모금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조셉 신 대장은 “궂음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의 생명을 살리는뜻깊은 걸음이다. 3월4일 40마일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페드로(우정의 종)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서 완주한 후 후원금을 LINK(LIBERTY IN



▲ LA총사단 보이스카웃 TROOP777 대장 조셉 신과 부인 레베카 신 부대원이 본사를 방문해 ‘탈북민 구호 모금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한 후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확신에 찬 포즈를 취해보고 있다.

NORTH KOREAN : 미국비영리단체)에게 기부하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외면하고 관심없는 탈북민의 슬픈 사실을 한인 2.3세 청소년과 한인커뮤니티 그리고 미국 주류사회에 알리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다”며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인 커뮤니티의 단합된 모습과 희망을 보여주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레베카 신 대원은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며, “스텝으로, 스폰서로, 함께 걷는 위크, 그리고 파트너 등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 (323)620-4848 조셉 신 대장

설교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왕하 19:1-7)

왕하 18:13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 앗수르왕 산헤립이 예루살렘 외곽을 포위하고 공격의 고삐를 조이며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말을 총동원해 협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훼방했습니다. (18:35, 둘째, 유대나라와 히스기야를 멸시했습니다. (18:31), 셋째,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18:15,16), 히스기야가 성전 곳간과 왕궁 건간의 은을 다 주었고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 주었습니다만 앗수르가 물러가지 않고 더욱 더 공격을 쫓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본문 19장이 그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1. 회개했습니다. (19:1)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붉은 베를 입고”라고 했고 2절을 보면 “붉은 베를 입혀서”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리고 대신들도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유대인은 회개와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여호와와 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왜 성전에 가이었습니까? (시 11:4)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라고 했고, (사 56:7)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위기 극복 비결, 즉 위기 돌파 방법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위기상황을 (19:3)에서 말씀합니다. 임산부가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은 둘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오직 성전에 들어가 뿔여 열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해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절을 보면 궁내 대신, 제사장, 장로들의 대표를 이사야에게 보냈다고 했고, 4절을 보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장 신임하는 신복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 즉 신령한 사람, 은혜받은 사람, 예언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

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3.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19:7)을 보면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19:35)을 보면 앗수르 군사 18만 5천명이 하나님을 동원하신 군대에 하룻밤 사이 송장이 되었고 (19:36,37)을 보면 산헤립이 앗수르로 돌아가 정적들의 칼에 암살당했습니다. 해산할 힘도 없었던 유대 나라, 이 때 히스기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앙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묘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정당, 지도자도 , 국회의원도, 목사도, 장로도, 평신도도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열드려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앙의 결단을 내려 승리했듯이 우리의 삶도 신앙으로 다시 살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효은 목사
연문부총합의회 총재



설교

“길갈에서부터 요단강 건너 승전한 엘리사(왕하 2:1-11)” (8)

종말에 보냄 받게 될 엘리야의 영 · 능력으로 오는 선지자를 미리 알려 주는 것이 구약시대 선지 엘리야이며 그의 세움 받음, 그의 사역 등을 끝내고 마지막 요단강 건너 승전하는 엘리야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신비한 역사를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길갈에 엘리야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길갈은 다시 할례 받은 곳이고, 유월절을 출애굽 후 최초로 지킨 곳이고 또 가나안 만사가 오늘날 속죄구의 복음, 은혜 복음으로 사는 것이었다면 가나안 땅 소산인 복은 곡식은 주 재림 후 천년 왕국에 들어가 누릴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분명하니 이는 퍼놓인 작은 책, 즉 주 재림 시 첫째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진리, 영광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을 뜻합니다.

다시 할례는 처음 할례는 그리스도이므로 세례 받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인을 중에서 순교신앙에 서 있는

종들에게(유월절 양인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인침 받는 것을 가리켜 다시 할례 받게 되는 종말의 144,000 종들을 계시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뱀엘로 들어갔다 나오는 엘리야지요. 뱀엘은 아람이 돌베개 하여 잡 잡 때 하나님이 나타내신 곳이고 그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며 지키시며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신 곳 이 뱀엘이요,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 계시 곳입니다. 종말의 선지 엘리야도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치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가리킵니다.

5개월의 극심한 황충이 화에도 전혀 해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요, 지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와 같이(계 11:1) 주 앞에 흠 없고 합당한 자로 흰옷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자들임을 계시합니다.

“엘리야를 여러코로 보내셨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큰 소리 외치게 하여 견고한 여러고 성을 무너뜨려 하나님

백성의 기업이 되게 하듯이 7년 환난의 날이 시작할 때 그 때에 따른 말씀을 증거하며 예언할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큰 바벨성이 무너지고 그곳에 속해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구하는 역사를 계시합니다. 여러고 성은 종려성읍이 되듯이 승리하는 종말의 종들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 요단강 건너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타고 승전하리라. 요단강은 순교의 강을 가리키지요, 종말의 144,000 하나님의 종들, 곧 두 증인들은 예언 사명 다 마친 후 그 칠천년세를 회수당한 후 순교 · 3일 반 후에 이리로 올라올라는 하늘의 음성에 따라 시체가 일어나서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계 11:1,12).

장한국 목사
주시랑교회 담임
대한노회 노회장
연문부총합 부총재



설교

노보산, 모세 기념교회

요르단 중부 사해 근처에 있는 노보산의 모세 기념교회이다. 430년간 애굽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악한 왕을 만나 노에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 하나님이 가라하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했던 그... 긴 방황의 끝에 도착한 노보산, 바로 그 앞의 요단강을 건너면 갈 수 있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 그는 그 가나안 땅을 더더보지 못한채 그곳에서 죽고 만다. 트리바에서 광야의 쓰거움으로 인해 목이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불신과 모세를 향한 분노로 물을 달라고 봉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때, 믿음없이 행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내린 벌...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민20:7~13, 신32:48~52).

결국 모세는 손에 잡힐듯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곳을 바라만본채 노보산에서 그의 숨이 멈추는 것이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바라만보는 그의 마음은... 그러나 여전히 모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우리를 본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며 자신의 거룩함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기도받이 센지, 내가 얼마나 예언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내 손에 쥐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나의 거룩함을 더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

주여, 그곳에 제가 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제가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내 모습은 감추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과는 사귀지도 않게 하소서, 오직

내 영혼이 주의 거룩함을 사모하여 당신의 결에서 당신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더 겸손히 더 낮아짐으로 주님 가신 거룩한 비아 돌로 로사의 길을 걷게 하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농주 목사
오산반석교회
본지 상임이사



설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인간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의한 죄와 탐욕으로 이웃 나라를 침략하며 주권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을 빼앗고 갑달한 일은 극악한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은 일이다. 그리하여 조선을 찬탈하고 주권을 빼앗고 많은 백성을 노예삼고, 교회까지 진멸하려는 짓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아직도 세계 역사상 비밀비재한 일이다.

지난 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런 일들의 대표적 사건이다. 그리고 지금도 영토에 대한 탐욕으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일들은 인간의 탐욕이 저지른 악이요 죄인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 저지르는 만행이다.

진실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나 국가 간에나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며 국가끼리도 화해와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본성이 부패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따라 서슴없이 전쟁과 약탈을 자행한다. 일본 제국의 조선 침략이나 공산당들의 6.25 남침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과 이런 악행을 보고만 계시는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손 놓고 계시는가? 과연 인간의 탐욕이 승리를 얻고 악이 지배하는 일들을 보고만 계시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모든 악행과 전쟁을 제한하시며 악이 승리하지 못하게 통치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죄로 저지른 일로 인해 세계는 각성하게 되고 발전하여 가도록 섭리하신다.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불행을 극복하게 하시고 번영을 누리게도 하신다. 이런 일들이 세계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도 예외가 아니다. 일제 강점기 속에서 도 일제의 만행을 통제하시며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게 하심으로써 저들의

죄와 탐욕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다.

6.25 남침의 동족상잔의 전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결국 지켜 내도록 섭리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보존하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요 선하신 섭리라 말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있었다는 것이다.

작금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부 불신자들의 모욕적인 발언과 올바른 신학적 관점, 지식의 부족한 기독교인들이 덩달아 부화뇌동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본질을 왜곡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2:1~6절 말씀 참고...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서명범 목사
공덕교회담임
본지 상임이사



www.inamhyu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비전 2020

1. 열정적 전도
2. 전인적 양육
3. 사랑의 공동체
4. 감격의 예배
5. 기쁨의 봉사
6. 즐거운 교제
7. 능력의 선교

담임목사 이춘복

예배시간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주일 오전 7시 30분	대예배(09:00)
주일 저녁 예배	2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09:00)
주일 청년 예배	3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대예배(09:00)
주일 오후 예배	1 청년부	주일 오후 2시 30분	비전(18:00)
주일 오후 예배	2 청년부	주일 오후 3시 30분	1세나(18:00)
수요일 오찬 예배	주일 오후 3시	주일 오후 3시	대예배(09:00)
수요일 기도회	오찬 7시 30분	오찬 7시 30분	대예배(09:00)
새벽 기도회	1부	매일 오전 5시	비전(18:00)
	2부	매일 오전 6시	비전(18: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46(개봉동 170-18)

전화 / ☎02)2618-8877-8, 2060-9123 FAX 2060-9124 / 당회장실 ☎02)2684-3317

사단법인 한국보수교단협의회

담임 이범성 목사 대표회장

157-881 서울시 강서구 학곡1동 348-21 호봉B/D 6층

☎02)2608-2190, Fax 02)2608-2191

지저스타임즈는 구독료와 광고로 운영됩니다. 저의 신문 방송은 자유로운 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구독자 성함으로 입금 협조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년 구독료 48,000원 ■

- 신한은행 314-12-250410
-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우체국 310029-02-152769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전화 : 070-8230-0034

Fax 겸용 : 032-672-3031

광고문의 : 016-478-6574, 010-5468-6574

권신찬-유병언 구원파세력 극동방송서 태동

세월호참사의 주범 구원파를 해부한다 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일 청와대로 종교지도자 1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더불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개신교 대표라는 명목으로 초청했다.

유병언 씨 키운 극동방송, 세월호 대책 협조?

그런데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유병언의 소위 '구원파'가 극동방송에서 태동했고 그 곳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아서도 김장환 목사를 불렀을까? 구원파가 일으킨 참사로 국민적 슬픔을 위로 하자는 간담회에 구원파의 '모태'였던 극동방송의 실질적 대표를 부른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김장환 목사 등 초청된 종교인들에게 "국민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돼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과연 청와대는 구원파와 극동방송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몰랐을까? 그렇다 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히 종교 담당 비서시스템에 심각한 과공이 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병언 씨. 고 권신찬 씨의 사위이며 후계자다. 1980년대 초반 이후부터 그들의 핵심 추종세력으로 부터 구세주를 의미하는 '그분'으로 은밀하게 불린 인물이다. 해운, 부동산, 유통 등 수많은 기업의 실질적 지배주이고,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박순자의 오대양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자이다. 그러한 자들이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다. 그들의 탐욕과 반생명적 작태로 292명이 사망했고, 아직도 12명의 시신을 조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역사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그 충격은

크고, 언제까지 그 트라우마로 이어질지 모를 지경이다.

구원파는 1961년 4월 미국인 독립선교사 딕(Dick)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았다는 유병언 씨와 같은 해 11월 네덜란드 선교사 길기수(Case Glass)를 통하여 죄 사함을 깨달았다는 권신찬 씨에 의해 대구에서 시작했다. 1963년경부터 이들은 선교사들과 관계를 끊고 독자노선을 걸으며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예장통합 경북노회 소속 목사였던 권신찬 씨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해 침례를 다시 받은 것이 문제가 돼 1962년 목사직을 면직 당했다. 이들 그룹은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라고 묻기 때문에 '구원파'라고 불리게 됐다.

극동방송, 권신찬-유병언의 구원파 키운 '모태'

경북노회로부터 목사면직을 당한 권신찬 씨는 그 후 독립교회로 전전하다가 1962년 2월 10일 동향인 심남설 씨(당시 총무부장)의 추천으로 극동방송의 전신은 '인천 복음주의방송국'의 전도과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이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은혜의 아침'이라는 설교를 맡아 매일 아침 방송설교를 하며 자신들의 오도된 교리를 전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극동방송 전신인 '인천 복음주의방송국'이 정통교회로부터 목사면직을 당한 인물을 '전도과장'으로 발탁했을 뿐 아니라, 설교방송을 맡았다는 사실. 목사도 아닌 사람을 설교자로 활용한 이 방송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당시 권 씨는 잘못된 신앙과 침례문제로 논란이 됐던 터였다.

방송설교를 청취한 이들이 경도된 신화사함에 몰들기 시작했



다. 그리고 추종자 그룹이 생겼다. 권신찬 그룹은 이를 청취자 수양회로 묶어 나갔다. 서울 불광동의 수련원에서 매년 여름 청취자 수양회를 열면서 자신들의 구원파 교리를 전했다. 그리고 이 수양회에 참석한 이들을 추종세력으로 조직해 나갔다.

〈기독교언론 공동취재단〉은 이와 관련, 극동방송 측에 유병언 및 권신찬 씨와 극동방송 관계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띄웠다. 이에 대해 극동방송은 "김장환 목사가 극동방송을 운영할 때 권신찬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지난 5월 21일로 보내왔다.

극동방송은 답변서에서 "당시 극동방송의 운영주체였던 '미국 복음주의동맹선교회(Team)'는 '거듭남, 죄사함, 복음을 깨달았다'는 표현에 미혹돼 유병언을 극동방송 부국장에 임명했고, 1969년 그의 장인인 권신찬을 방송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TEAM선교회가 이 둘의 구원파적 사상에 미혹돼 방송의 중요요직에 임명한 것과, 장인보다 사위를 더 높은 보직으로 세운 것도 의아한 점이다. 당시 대중적 인기를 받았던 사람은 유병언씨가 아닌 권신찬씨였기 때문이다. 극동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1972년 극

동방송의 시스템 변화에 따라 그 해 11월 팀선교회와 쌍방계약을 체결했다.

극동방송의 해명.. 그리고 제기되는 의문점

극동방송은 "구원파가 한국어 방송을 담당하게 된 것은 1972년 11월 팀선교회와 구원파의 쌍방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팀선교회는 세계적인 오일파동으로 미국의 헌금이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 "권신찬이 청취자와 구원파의 헌금으로 극동방송을 운영하겠다고 제안해 12명의 직원이 함께 입사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의문이 생긴다. 예장통합 등 주류교회가 이 둘의 극동방송 설교와 운영에 대해 잔뜩 경계를 하고 있었음에도 팀선교회가 왜 이들을 운영주체로 세우는 계약을 체결했느냐의 문제다. 극동방송의 답변은 이어진다. "이들의 방송내용에 대한 예상통합 등 한국교회 교단들의 반발과 이러한 기류에 대한 팀선교회의 인식으로 1974년 7월말로 유씨와 권 씨를 포함한 구원파 직원은 모두 해고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원파 입당은 해고가 되기 전, 이사회회의 위조 등 극동방송 탈취계회를 진행했다"면서, "이에 팀선교회 측은 임시이사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의문은 계속된다. 극동방송 측은 팀선교회가 예상통합 측의 반발로 1974년 그들을 해고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증언과 자료에 따르면 이전부터 예상통합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훨씬 이전부터다. 즉 쌍방계약을 체결했던 1972년 훨씬 전부터 논란이 돼 온 것이다.

예장통합 측으로부터 면직을 당해 목사도 아닌 사람과 쌍방계

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가 방송 설교를 하도록 한 팀선교회의 정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 점에서 1972년 이후 예상통합 등의 반발기류로 그들을 해고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극동방송은 "이후, 김장환 목사를 비롯해 교계의 뜻있는 인사들은 극동방송이 구원파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나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통 복음주의에 기초한 선교방송으로 정상화했다"며, "구원파 파동을 극복하고 난 뒤 당시 아세아 방송 국장이었던 김장환 목사에게 운영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김장환 목사는 구원파 파동이 모두 매듭 되어진 1977년 1월 1일에 한국인 최초의 국장으로 취임하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극동방송 측은 "극동방송을 할 때, 권신찬 씨와 어떻게 처음 만났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김장환 목사님께서 극동방송을 운영할 때 권신찬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만 밝혔다. 질문내용에 대한 즉답을 피한 채, 초점이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극동방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77년 이후 권신찬-유병언 씨를 만난 적이 없지만, 이전에는 동료로 만났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극동방송 측은 "극동방송의 구원파 파동은 정통 복음주의의 선교방송인 극동방송을 향한 구원파의 야욕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극동방송은 이 사건의 피해자이며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구원파와 무관함을 확실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극동방송이 권신찬 유병언

씨를 키운 모태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 측이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적어도 1974년 이전에는 이들의 동료였던 점 또한 드러나는 사실이다.

1969년 3선 개헌 당시 조용기, 김준곤 목사 등 242명이 지지성명을 낼 때 김장환 목사도 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당시 김장환 목사는 이미 극동방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연 김장환 목사는 유병언-권신찬 그룹을 전혀 알지 못했을까? 알았더라도 교류가 전혀 없었을까? 현재까지 극동방송은 구원파에 대한 김장환 이사장의 관계 및 태도만 밝혔을 뿐, 구원파 세력의 모태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나 교회에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동취재단)

한미노회 해산 결의안 통과, 찬성(529)대 반대(44)

30년 만에 해산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는 한미노회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남가주 한미노회가 이번 제221차 총회에서 찬성 529 대 반대 44의 압도적 표차로 해산결의안이 통과됨으로서 한미노회는 결국 해체되게 되었다.

한미노회 역시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산안 인준을 2년간 보류하는 대체안을 올렸으나 앞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으며, 결국 30년간 지속되어 왔던 한미노회는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남가주와 하와이 시노드 총무인 도스카 로스는 지난 15년간 한미노회가 가지고 있던 갈등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



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적절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안을 상정한다면서, "한인들은 열정적이고 활발하고 영적인

사람들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지역노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니엘 방 기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교회



담임 김창목 목사
한경총 부회장

(예배시간안내)

주일	주일 대예배 치유와 회복 찬양예배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오후 02:00 오후 04:00	GDFC 본당 GDFC 본당 치유와 회복 수양관
화	성령축제 1부 성령축제 2부	오전 11:00 오후 02:00	GDFC 본당 GDFC 본당
수	수요예배	오후 09:00	GDFC 본당
금	중보기도의 밤	오후 09:00	GDFC 본당
토	시명자 학교 천양시역자 학교 영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후 03:00 오후 04:00	치유와 회복 수양관 GDFC 본당 치유와 회복 수양관
매일	새벽기도(토요일 제외)	오전 05:00	GDFC 본당

445-963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242번길
☎031)366-2236 홈페이지http://www.gdfc.kr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정총현교회



담임장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부총사임의회 총재)
사무장: 신오식, 정종국, 김홍령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2014들어

'말씀에 이만하여 다음 세대를 감동로 축복하소서'
(고후 1:18-20)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입니다.
막연히 좋은 미래가 오리라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의 미래가 있고, 지상에서
믿음 지킬 때 미래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나도 잘되고 자손도 잘되자"

- 1.예배의 삶에 초점 맞추고 전도하라.
- 2.온전한 심일조와 감사로 물들라.
- 3.부모공경으로 효를 다하여라.
- 4.봉사, 섬김으로 복을 쌓아라.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금요기도회: 밤 9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주일~금요일)
유·초등부: 오전 9시
중·고등부: 오전 9시
청년부: 오후 3시30분

〈도시행버스〉
1 중산 -- 화정 85-1 교당동 -- 송정전철역
850 교당동 -- 평신역
706 교하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촌
〈좌석버스〉
85 교당동 -- 김포공항 800 내곡동 -- 신촌
877 김포 -- 평 7712 평민 -- 새마을
(직행버스)
82 내곡동 -- 영등포 1900 본일산 -- 서울역
〈시외버스〉 3700 의정부 -- 인천
(마을버스) 6, 6-1, 6-4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 8분가량)

주소: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38번길 27(화정동)
교회(031) 966-0015 (FAX겸용) 자택 (031) 965-7682

http://www.mokpojuan.com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모정선 신길현 모정은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은미 김미경
안윤기 김진희

협 동 목 사: 장정화(은퇴) 서기욱
전 도 사: 주정희 진안순 윤영욱
교육전도사: 송선택

시 무 장 로: 고재원 송영문 천은상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휴 직 장 로: 임복희
은 퇴 장 로: 노남규
협 동 장 로: 이병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MokpoJuan Presbyterian Church

본교회: 목포시 청호로159 (북향동)
TEL, 061-272-4908 FAX, 278-0693
남약예배당: 목포시 남약로 52번길 남약크리닉A동 301
TEL, 061-287-0692

김경직 박사, 한국교회를 진단한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미래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한국교회의 영적질서가 엉망진창이며 심각하다며 서두에서 김경직 박사는 “전국기독교시민연대와 기독교사회질서연합 대표, 비평과논단(기독교 신학자널지)을 발행하며, k 신학대학원에서 이단종파 교수를 역임, 라이프신학교의 비교종교학 교수, S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이단종파 교수, 현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질서가 엉망진창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가 지금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미래세대에 신앙과 신학을 물려줄 수 없을 만큼 매우 위험하고 혼란한 상태에 살고 있다.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로 어떻게 한국교회의 미래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줄 만한 게 없다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것을 물려주려면 현 기성세대인 목회자들과 대형교회의 목사들이 빠져진 회개와 강력히 각성해야 핏을 주장한다.



한국교회가 물질만능주의로 너무나 많이 썩어있다.

저의 전공이 비교종교학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보는 위주로 진실성이 전혀 없고, 또한 성공한 목사가 이 결혼하지 않다. 사회인이나 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가야하는데 겸손하지 않고,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해외에 나가 골프를 즐기는 등 사치가 너무 많다. 이것은 참 목회자의 모습라고 볼 수 없다. 이것부터 고쳐야한다.

그들의 자녀들도 고급승용차에 명품을 좋아하고, 사모도 명품으로 사치하고 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다. 심지어 저를 죽인다는 사람도 있다. 저는 순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현재 한국교회가 너무나 엉망이다.

특히 여자 목사들을 보면 어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신학도 제대로 못하고 검증도 안 된 여성들이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마치 한금이 자기 돈 인양 착각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여 목사는 후에 이들을 개명했다. 게다가 한기총

전 S대표회장 교단에 들어가 그곳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그를 보호해 주고 있다.

또한 그 여 목사는 수십억이 넘는 땅을 기부받아서 자기 남편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았다. 이런 행위를 자제가 사기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니다. 그래서 자전운동을 해야 한다. 저는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

한국교회가 사회질서가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뉴스엔조이가 잘한 면도 많다고 본다. 그들이 옳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 절대 적대관계가 아니다. 한국교계가 썩고 냄새나고 신음하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과 단체가 있어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연대를 하고 있는 저는 한국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을 가만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속히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겸손해져야 한다. 따라서 한금은 자기 돈이 아니다. 하나님의 돈이다. 또한

교회를 크게 지어서 은행용자 100억에서 많게는 2,000억을 용자를 받아서 현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금융권에 이자 갚아나가는데 허리가 휘 정도이다. 어떤 교회는 결국 경매에 내 놓는 등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될 바엔 안치고 자기 집에서 한두 명이 모일지라도 예배드리는 것도 좋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빔을 내서 개척하지 말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면 자비량해라 그리고 본마음은 변치 말라고 주장하면서 가르친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중에는 가짜 박사 학위 남발 심각하다.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하다. 또한 목사들 가운데는 이력서에 가짜들이 많다. 게다가 가짜 신학대학 박사학위가 많다. 사실 목회하기 바쁘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할 수가 없다. 바빠서.. 그래서 해외에서 논문도 안 쓰고 가짜학위의 남발, 행포...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부끄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저도 깨닫지 못하다. 털

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에 교황이 8월에 내한한다. 한데 우리 한국교회에 천주교의 교리가 우리 개신교에 유입되어서 성경적이지 않고, 카톨릭의 교리를 수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변영신학과 사이비신학이 되지 않았다... 라고 본다.

이단으로 정죄된 목회자들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기독교시민연대와 기독교사회질서연합은 한기총과 연합해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바로 잡는 일에 결심한 것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한다. 특히 한국교회의 목사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어 심각하다. 그리고 순교자가 없다. 본인에게 분리하면 다 피하고 그림자도 안 보인다. 그리고 용서가 없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는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교단이 분열되면서 뜻이 맞지 않은 교단들은 등을 돌렸고 이단으로 규정짓는 등 이단들을 만들어버렸다. 현재 이단으로 정죄된 목회자들이 300명이 넘는다.

하지만 진짜 이단들은 이단이고, 정치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자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는 한기총만 하라는 법이 없고 타 연합단체이든 다른 교단에서도 정말 솔선수범해서 역을하게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재심기회를 주어서 살리는 운동을 해서 다같이 함께 가고 다음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정신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시급하다.

끝으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힘써주었으면 하겠고, 또한 변영신학을 부르짖지 말고 축복 축복 부르짖지 말고, 진솔하게 성경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한국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 영

혼불멸사상을 주장하는 목회자 신학자가 있는 반면, 영혼멸절사상을 주장하는 목회자, 신학자가 있다. 영혼불멸설을 외국학자로는 오스카 모 박사가 주장했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의 김 모 박사가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혼멸절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 한신대 석좌교수 최 모 박사가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주장하는 파들이 있다.

전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바로 저 천국에 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안 간다. 천국에 간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 또한 K씨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그 영혼이 구천에 떠 있는데 귀신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개신교회의 학자들이 포럼이나 세미나를 거쳐서 분명하게 규정지어야 한다는 저의 주장이다. 혼란이 많이 오기 때문이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규명을 지어야 한다. 전자나 후자나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부활신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활을 100% 믿는다.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서 신학적인 것도 성경에 입각해서 각주를 달아서 규명을 지어야 한다. 다분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애매모호하게 교리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다른 교단도 성경해석상에 조금은 다를 수 있다. 교리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단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타 교단을 매도하면 안 된다. 타 교단일지라도 교리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검증도 없이 이단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해서 화합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김경직 박사는 불의에 타협도, 침묵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한국교회는 진짜 이단과는 손을 잡아서 안 된다. 그러나 캐톨릭과 손을 잡는 NCK가 있다. 이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캐톨릭과 MOU를 체결했다. 또한 통합측 제 일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모 목사는 로마 캐톨릭은 큰집이고 개신교회는 작은집이라고 한다. 바로 그가

앞장서서 NCK는 로마 캐톨릭과 MOU를 체결했다. 절대 캐톨릭과 한국기독교가 연합될 수 없다.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는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원로 목사들은 물론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각성해야 된다.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대성통곡으로 회개하며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동시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 신학자들은 로마 캐톨릭과 관련된 교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고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돌아서야겠다는 저의 주장이다.

또한 저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 아니면 아니요, 옳으면 옳다고 분명하게 다짐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순교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호흡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썩고 냄새나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앞장설 것을 밝혀둔다.

Eduardo S. David 한국에서 목사안수 받아

목사안수 임직예배가 지난 6월 12일(토)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새에루살렘교회(황혜영 목사)에서 예장 합동 복음총회(총회장 곽동훈 목사) 주관, 필리핀 사단법인 세계원주민선교회 주최로 진행되었다.

김 순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손인규 목사의 기도로 황혜영 목사는 행1:1~3절을 봉독하고, 이천순복음교회 담임 김명현 목사(필-한국신학대학교 이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교사”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총회장 곽동훈 목사는 Eduardo S. David에게 서약과 목사안수를 하고 공포했다.

이어 박종진 목사가 권면을, 최규봉 목사(신장제일교회), 김영국 목사(구로열린교회)의 축



사가 있는 후 김종태 목사(필-한국신학대학교 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안수위원은 총회장 곽동훈 목사(예장합동복음), 박종진 목사(흑성감리교회, 증경감리사), 이영준 목사(고북순복음교회 증경총서지방회장), 정취범

목사(안산은혜교회), 최낙현 목사(산성그리스도의교회 증경강원지방회장), 김영국 목사(하나님의성회 서울남서지방회장), 김종태 목사(필-한국신학대학교 이사장), 김명현 목사(이천순복음교회 필-한국신학대학교 이사) 등이다.

수 목 원 교 회



담임 최춘길 목사
본지 상임이사 및 논설위원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152-102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02)2683-2091

기독교대한 수원할렐루아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

주일에배안내

오전 11시
오후 2시30분

441-85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T/F: 031)224-4947 영상전화: 070-7947-4798
H.P; 010-4611-3221(문자)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곽순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사랑.섬김.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석/작기 요양원 정동진 해방원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신학교수
- 서울 칼로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송숙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 일 오전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새 벽 5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홈페이지 : www.ezob.org 이메일 : usc2810@hanmail.net
전화 : 02- 414 - 1191 집 : 02-423-5154
담임목사 : 박송숙 목사 (010-3775-5154)

2014년 포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담임 서명복 목사

공 덕 교 회

담 임 : 서명복 목사(본지 운영이사)
사무장로 : 송두현 박성현
안수집사 : 김정구
권 사 : 전순자, 김정애,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담임 광원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예배안내

주일오전: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주일오후: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은주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적복음가수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 영광제일교회 이기웅 목사



산과 숲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고 각종 짐승들과 새들의 노래 소리와 맑고 깨끗한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는

렇게 말한다. 사업하고 정직하고 목사가 되기 전에 삭막했던 교회 목사 성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막상 세상과 술 담배 끊고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 너무도 큰 실망이 컸다. 이유는 신학교 내에 막걸리 통과 담배 껍초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극복한 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하는데 그가 상상했던 목사라면 진실하고 거짓말 안하고, 정직하고, 성직자요,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존경의 대상이다. 하지만 그러한 목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이 컸다. 이 목사 자신이 세상에서 50평생을 죄악의 몸으로 살아왔고,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그토록 믿었고 신뢰했던 목사들에게 실망이 컸으며 그러한 목사를 만나는 게 반갑지가 않았다.

목사가 되어 목사들에게 너무도 많은 사기를 당했고, 그 상처가 크다. 룩하면



“한국교회 이대론 안 돼, 회개하고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산다”

나그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누구든지 이곳을 찾아오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원터요 삶의 재충전을 받고 돌아가 신앙생활과 목회에 큰 힘이 솟구쳐기를 원한다.

경기도 광주시 목동 78번지 영광제일교회 당회장 이기웅 목사를 만나보았다. 목사가 되기 전에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었는가? 그 과정이 은혜가 된다. 천국과 지옥을 본 후 세상과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한다.

이기웅 목사는 유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철저한 유교사상으로 훈련되었다. 부친도 정치에 하셨는데, 후에 이 목사도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모 정권 때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회정화위원회에서 용맹을 떨쳤다. 당시 사회정화위원회라면 올던 아이도 꼭 그쳤다는 일화도 있다. 또한 그는 정화위원으로 있으면서 대한청년 반공연맹과 새마을 추진위원회, 서울특별시 발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검찰청 자문위원회, 청소년 선도위원 등 일곱 가지의 직함을 가졌고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 셋을 경영하면서, 정치를 하고, 사업을 했었다.

이 목사는 경기도 광주에 온 동기를 이

목사 입에서 거짓말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보니 마음으로 상처를 엄청 받았다. 목사를 때문에 물질의 손에는 말도 못한다. 그토록 믿었던 목사의 요구에 돈이 없으면 말 것이지... 교회를 은행에 저당하고 5억원을 대출받아서 주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대로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고소장을 써서 법원에 접수를 하고나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고 다음날 가서 고소장을 취하를 하고나면 너무 억울한 마음과 분해서 잠이 안오고 밥이 안 넘어갔다. 그래서 또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하고 또 취하를 하고 그러기를 세 번이다.

돈은 이미 없어진 것인데 이 사실을 형제들이나 그 외 친척들이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까봐... 고민 끝에 돈은 없어진 것, 마음에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잊어버리자... 그랬다 강대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고, 사실 그렇게 결심을 하자 마음속이 편안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목사를 만나고 있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에 맞는 목사를 만나기가 어려웠다. 지난 날의 아픔이 너무 컸다.

이 목사는 역삼동 교회가 좋았다며 지금도 잊지를 못한다.

엄청난 아픔이 있을 후 이기웅 목사는 결심한 게 있다. 일반적인 목회는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이어간다.

내가 그 좋은 길 다 버리고 수도기도원(원장 이태희 목사)에 올라가 금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일반적인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 역삼동에 그 좋은 자리 다 버리고 내가 사업하는 것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시는 천국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남은 일생 남은여생,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보지 않는 것을 봐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니 주님 나는 자신 없습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월 3:17절을 주셨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깨우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깨우친다는 단어를 찾아보니 '각성'이었다. 회개시켜라, 깨닫게 하라, 알게 하라는 것이며 또한 기도하는데 귀고막이 찢어질 듯이 세 번 울

리는데 쉼37장을 보라하셨다. 에스겔골자기에 죽은 뼈들을 살리라는 것이다. 거기서 응답을 받고 역삼동 교회를 정리하고 이곳 경기도 광주로 오면서 결심하기를 일반 목회는 안한다.

이제부터 할 일은 신화를 줄임하고 목회하는 목사를 데려다가 사상 교육시키는 일인데, 바울처럼 살아가. 바울처럼 복을 위해서 죽으라는 사상교육이다. 10년 전에 이곳에 바울사관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들의 사상교육을 시켜서 한국교회를 살려라 성도들 살려라. 누가 살릴 것이냐며 교육을 시키고 있다.

요즘 한국교회와 신학교의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현재 신학교는 물론 교회를 보면 한국에 내 노라는 목회자들의 하는 행위가 무슨 꼴인가?... 강북제일교회, 사랑의교회, 서울에 큰 교회가 성한 곳이 없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곳에서는 2개월에 한 번씩 영적대각성집회를 열고 있다. 그전에는 3박4일을 숙식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다보니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다. 그래도 누구든지 은

혜만 받으라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날 때이다. 그래서 지금은 2개월에 한번씩 회비 받지 않고 무료로 영적대각성운동을 하고 있다. 벌써 이 운동을 18년 동안진행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들 중에는 한국교회가 제2의 불길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신문에 보면 성도의 수가 1200만이라고 하지만 800만으로 줄어들었다. 어느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즉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3~4년 내 300만에서 400만 명으로 성도의 수가 줄어든다고 했다. 현재 큰 교회들이 경매에 나와 있다. 부흥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저의 설교가 CTS, CBS에 방송되고 있지만 나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 한다. 당신들이 바로 되어야 한국교회가 산다. 당신내들이 물을 흐려놓고 흐려진 물이 어디로 가겠느냐... 주님 앞에 설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들 가운데는 K 목사가 성공했다는 말을 하는데 성공이란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는 것일까? 교회가 크고 성도의 수가 많고, 유명해져야 성공인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에 아~ 너 목회 잘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설교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 목사가 성공하려면 교회의 욕심을 버릴 것, 성도 욕심을 버릴 것, 돈 욕심을 버릴 것, 명예 감투 욕심 버릴 것, 자신까지 버려라... 그랬야 목회에 성공한다. 교회가 크고 성도 많고, 이름 있는 목사인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목사로 인정안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광제일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방송 설교를 듣고 은혜받고 불려와 교회가 이

루어졌다.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부산에서 철원에서 온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다. 성도들이 원했던 설교가 있는 것이다. 성도들이 듣기 원했던 설교가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는 부자 되는 설교, 축복의 설교, 행복의 설교는 이제 성도들이 듣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속히 회개하고 '영적대각성운동'이 일어나 변해야 산다.

영적으로 보는 한국교회와 육적으로 보는 한국교회의 차이는 크다. 저는 육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교회는 사양길이다. 이광소 목사(전 국가독교연합회 회장)는 한국교회는 지금 침몰직전에 있는 배와 같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목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영적대각성운동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바울사관학교를 여기서 정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전에 바울사관학교를 하는 도중 사기를 당해서 한동안 중단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2개월에 한번씩 광고를 하고 목사, 장로, 권사들이 모여 온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온다. 이곳에서 영적대각성운동을 하고 바울사관학교를 하면 잡지는 시간은 3시간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내 계획은 한국교회의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 남은여생을 이것으로 마치려고 한다.

한편 오는 8월 남원에서 호남지역 목회자들 500여명이 모인 세미나가 있는데 첫날 소강식 목사, 둘째 날 강문호 목사, 셋째 날 이기웅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에녹부흥 사관학교

대표	사무국장	교무국장(교수)	사무간사
 박영민 목사	 김선우 목사	 김성일 목사	 김영세 서모
교수진			
 김경현 교수	 임대구 교수	 박형구 교수	 고요한 교수
 박혜스미 교수	 한관수 교수	 김경수 교수	 박경자 교수
 임요한 교수	 전미리 교수	 김광수 교수	

■박영민 목사 약력

- 동불교회 담임
- 에녹부흥사관학교·부흥사회 대표/전수위원장
- 지저스타임즈 인턴지사장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세계주영영양사협의회 9대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본사 사무국장
- 예정에녹총회 설립자
-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사무국장
- 예·정예녹총회 인턴노회 소속

http://kiea.onmam.com

중식 및 교재 무료 제공

※시간: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2시(학술원)

※장소: 등불교회·예수능력치유센터

※주소: 인천 남구 능해길5구, 남구 송의1동 441-45

※문의: (사무국장)010-3499-2441, (교무국장)010-9610-8508

에녹 총회 신학원, 연구원, 학술원생 수시 모집
수업일: 매주 금. 토 오전10:00부터~
“몸찬양(무용,국악,찬양)매주(목)오전10:00~

대한예수교장회(에녹)총회 제1회 임시총회 공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아멘! 골1:25절



설립자 **박영민** 목사
등불교회
에녹부흥사회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인턴지사장 본사 사무국장

에녹총회 중점 노선

1.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 중심
2. 종교혼합주의 반대
3. 종교 다원주의 반대
4. 동성애 반대
5. 여성 목사 안수 인정
6. 목사 무정년제

제1회 임시 총회 공고

● 일시: 2014년 7월 24일 오후 2시 ● 장소: **등불교회**

● 주소: (우)402-011 인천 남구 송의 1동 441-45.

● 문의: (간사)010-6778-0651 (사무총장)010-9610-8508

*회원들은 노회비 지참, 출석 바랍니다.

*임시 총회 이후 교단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교단 발전기금으로 일정 금액을 헌금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총회 회원 자격은 가입 서류가 7월 10일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예장(예능)총회를 설립한 곽영민 대표회장

신앙노선이 같고, 동 교단 발전을 위한 목회자 교역자 회원가입 환영

교단의 슬로건은 "오직 복음으로"

예능총회는 순수 자생교단이다. 타 교단의 분열을 시켜서 교단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예능부흥사관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뜻을 같이하여 2013년도에 한국교회를 힘있게 했던 WCC문제로 인하여 교단에서 탈퇴하여 나온 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역시 그 부분 때문에 대형 교단에서 홀로 탈퇴를 했고 그 후 많은 목회자들이 탈퇴했다.

WCC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동성애자는 교단가입 불허...

저는 무리들을 선동하고 분열시켜서 만든 교단이 아니라 예능부흥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훈련받은 목사들과 사역자들이 교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특히 예능교단의 신앙노선은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 동성애를 배격하면서 WCC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내용이라면 우리도 수용을 하되 그러나 WCC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단호하게 성경과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WCC를 거부한다.

또한 요즘 동성애가 대두되는데 동성애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교단은 절대적으로 찬동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 마인드를 가지고 예능총회를 발기하게 되었다.

여 교역자 목회자 가입환영

또 하나는 여성 고급 인력들이 많은데 신학교에서 여성들을 교육하고 배출한 것지 그들을 무시한 경향이 많았다. 게다가 아직도 여 목사 제도가 인정된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목회자들의 입지가 많이 어렵고 또한 교단의 중차대한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 목사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 교단은 여성 목회자들의 인수를 인정하고 그분들이 남성들과 같이 버금갈 정도로 또한 그 이상이라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에게 똑 같이 대우를 해 드리자는 취지를 가지고 여성 목회자들을 동 교단은 인정하고 있다.

본 교단은 목회자 정년제 없어 마음껏 사역할 것.

또한 동 교단은 목회자의 정년제가 없



예능총회 설립자
곽영민 목사
(예능부흥사협회 대표회장)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나라는 특별히 항존직이기 때문에 목회의 정년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한국교회가 정년을 70세로 묶어놓았다 그 결과 은퇴를 한 후 또 개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요식행위가 아닌가... 은퇴를 했으면 제2의 선교사로 나간다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 사역을 해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다시 또 개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럴 바에는 정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동 교단은 정년제가 없다.

타 교단에서 예능교단으로 옮기고자 할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예능)총회에 가입을 했을 경우 총회의 규칙에 따라 편목을 하게 된다. 또한 그의 준한 연수는 필수이다. 또한 강도사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목사 고시와 목사안수를 동 교단 산하 노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편목의 경우도 동일하다.

작은 교단을 보면 행정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많은 지적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동 교단은 총회 설립감사예배도 작은 교단이지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교단. 명품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내실을 기하고 특별히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정확한 서류를 제출했을 시 서류의 결격사유가 1차적으로 없어야 되고, 동 교단에 가입을 했을 경우는 총회의 규칙에 따라 편목과

정을 예능 부흥사관학교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하여 정식으로 회원의 자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함으로 교단의 동질성도 갖고 교단의 노선에 대해 알 수 있기에 총회의 규칙을 정해 놓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동 교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비전을 말한다면? 동 교단의 비전은 1차 적으로는 교단 협의회를 7월 중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장과 노회장을 선임하고 동 교단과 노선이 같은 보수교단협의회에 가입을 할 예정이다.

그곳에 가입을 해서 총회원들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도록 본인의 교단에 대한 소속감과 어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동 교단은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으로 그 신앙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교단협의회와 뜻을 같이할 것이다. 이제 1차 적으로 인천노회를 주축으로 50개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50개 노회가 되었을 때 본 노회를 시켜서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오직 성경 중심적인 교단으로...

따라서 동 교단은 목회자의 결격사유



가 없는 이상은 회원들을 영입을 해 나갈 것이다. 물론 교파를 초월한다. 앞으로 300교회가 되면 교단이 안정권에 들어서리라고 본다. 그러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300교회를 목표를 정해 놓고 회원들을 영입하고 있다.

거듭 교단의 정체성을 설명한다면 동 교단은 칼빈주의도 아니요, 알미안주의도 아니다. 동 교단은 오직 복음주의이다. 즉 장로교회이지만 어떤 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로교회의 기본교리,

장로교의 신앙고백은 다 지켜나가지만 어떤 주의 지향적인 것은 동 교단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동 교단은 오직 복음주의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할 때 교단이 포용성이 있고, 작금의 현실은 너무 지나치게 장로교 안에서 개혁주의다, 칼빈주의다. 그래서 거기서 또 과별이 생기고, 개혁주의는 그대로 칼빈주의는 그대로, 나누어져 있는 현실이 보인다. 그래서 장로교의 기본 교리는 따르되 우리는 어떤 주

의를 따라서 교단의 색을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중심적인 교단, 복음주의적인 교단으로 만족하다고 본다.

동 교단의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은 "오직 복음으로"인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함축된다고 본다. 오는 가을부터 신학교가 개강되는데 능력 있는 교수진도 확보가 되어 있다. 지금 신학교를 위해서 총회원들이 기도하고 있다. 특히 예능총회는 올바른 인재양성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교회 기도원 개원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세워진 평화교회 기도원

대한예수교장로회 평화교회 기도원(원장 임금순 목사, 담임 정중환 목사)은 지난 6월 14일(토)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소재에서 기도원 개원감사예배를 드렸다.

중부노회장 이영근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최형대 목사(부노회장)가 기도하고, 운동하 목사의 율동과 강신숙 목사의 특별찬양이 있은 후 개혁총연 증경총회장 이강익 목사는 마 16:13~20절을 인용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이 목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부족한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세상에 쫓겨서 말씀이 없다는데

안타까움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힘을 때라고 했다.

이강익 목사는 또 신학교를 20년을 하였지만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배움을 바로 쓰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교회와 기도원을 개원하는 원장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부흥과 역사와 일어난다고 했다.

게다가 우리 학교 나온 사람이 예언하고 기도하고, 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강도와 절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감사하는 마

음으로 봉사하고 물질을 받치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랑을 좋아한다면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중부노회장 이영근 목사가 개혁

총연 서남부대회 중부노회의 권위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설립인허증 증명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정기간 목사(지저스타임즈)가 축사를, 평화기도원 원장 임금순 목사, 담임 정중환 목사가 인사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평화교회 기도원을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어 증경총회장 이강익 목사 축도로 마쳤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사랑 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2014년도 목표 : "어두움에 빛이 비치라"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예배시간안내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 오후 5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 오후 6시
새벽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 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춧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지 66
(화정농협 5층) 전철(3호선 화정역 1번 출구)

한경총, 김진수(대광교회)목사 총회장 후보수락

한경총, 37-2차 정기총회 준비 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한국경목총회(총회장 이상재 목사)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경기도 광주시 목동 영광제일교회(이기웅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앞두고 37-2차 준비 임원회를 갖고 선거관리위원장 이효은 목사는 본회 총회장 후보 등록 기간 중 부회장 김진수 목사(대광교회)가 단독후보로 최종 수락되었음을 보고하고 부회장 김진수 목사를 소개했다.

이날 임원회에 앞서 사무총장 홍환표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고, 영광제일교회 당회장 이기웅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부회장 김창룡 목사(하나님이다자인 하신교회)가 기도를, 협동총무 우슬초 목사의 특송이 있는 후 직전 총회장 허식 목사는 로마서 8:1~11절을 봉독한 후 “종의 사명은 영성이다”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허식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중요한 사명자라면서 사명자는 때로는 경고도 하고, 잘못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요한 웨슬리는 영국사회를 새롭게 만들었다면서 이는 영성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살려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부



활도 영성도 없으며,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우리에게 있는 영성, 신성이 무엇인가 영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은 영이요 말씀인데 내게 얼마만큼의 신성이 있느냐, 성화되었느냐 성숙되어 있느냐 영성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것은 내 개인에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영성이 없이 살았을 때 내 인생에 끼치는 영향은 심각하며,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불행하게 만든다고 경고하고 영성이 부족할 때...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영성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목회

자인데 목회자가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면 법정용어로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성으로 이 시대에 사역을 잘 감당하길 기원했다.

이어 증경총회장 허식 목사는 이기웅 목사(영광제일교회 당회장)를 경목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에서 1) 나라와 대통령을 위하여 부회장 이창식 목사, 2)경목선교와 이성은 경찰청장을 위하여 3)37차 정기총회를 위해서 고문 박한규 목사 등이 각각 기도했다.

이날 한경총 임원회는 37차 정기총회를 선관위에 단독후보로 결

정된 김진수 목사(대광교회 시무)에서 오전 11시 예배와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신임총회장과 새로운 임원체제로 조직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국 한경총 경목위원 총대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며, 총회가 끝난 후 7월 14일~16일까지 2박3일간 한경총 단합대회를 겸한 수련회를 갖게 된다.

이어 사무총장 홍환표 목사의 광고가 있는 후 직전총회장 허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부회장 유철규 목사의 오찬기도로 영광제일교회 이기웅 목사가 준비한 오찬을 즐기며 화기애애한 가운데 마쳤다.

예장개혁, ‘전국목회자부부 2박 3일 수양회’ 열어

통합 이정환 목사, 인요한 교수 특강에 나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총회장 김승수 목사) 제32회 전국교역자부부 하기수양회가 6월 23일 오후 5시 경기도 이천시 렐던트훈련원에서 1천여명의 목회자부부가 참여 가운데 2박3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금번 하기 수양회는 ‘복양을 피하는 그늘되신 예수(사25:4)’를 주제로 진행된다. 주강사로는 류광수 목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이사장)가 3강의를 한다. 특강으로는 ‘이단사이비대책’ 건은 이정환 목사(통합)가, ‘한국 선교방향’에 대해서는 인요한 교수가 특강한다. 이날 개회 예

배는 대회장인 최승영 목사의 사회로 회록서기 하금식 목사의 기도예로 이어 총회장 김승수 목사가 선포했다.

김승수 목사는 설교에서 ‘선택과 집중’(마 4:1-11)을 주제로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말씀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 대해 이바지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사회속에서 이루어가는데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하며 사람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원과 유병언은 전혀 신학적 바탕이 없

는 이단임을 분명히 했다. 또 최근 개신대학원대학교 일부 교수가 개혁주의 신학노선을 벗어난 행태와 관련하여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개신대의 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인간의 정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회자가 되어야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세계복음화에 집중하며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회자와 하기수양회가 될것을 강조했다.

이어 개회예배는 개신대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조경대 목사가 축도하고 폐회되었다.



더 많은 콘텐츠와 다양한 소식 접할 터

미주타임즈와 MOU체결

빠른 소식 바른 정보를 전하는 '미주타임즈(대표 다니엘 방)'와 바른 소식을 전하는한국의 '지저스타임즈(발행인 정기남)'가 지난 1일 미주타임즈 회의실에서 MOU(상호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미주타임즈 다니엘 방 대표와 지저

스타임즈 이사장 정기환 목사가 각각 대표로 참석해 MOU 체결, 서명을 하고 양 신문사 간에 협력과 우호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미주타임즈는 지저스타임즈와 JTNTV의 정보와 소식을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고 다양한 한국 소식을 보다 빠르게 미주 한인커뮤니티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

◀ 다니엘 방 미주타임즈 대표(좌)와 지저스타임즈 정기환 이사장이 뉴스정보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뉴스 보급 및 홍보 효과 등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피종진 목사 7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jonglin77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6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1(화)~3(목) 미국(U.S.A) Houston University Nyskc Family Conference 2014
주최: Nyskc World Mission(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4(금)~6(주) 미국(U.S.A) 휴스턴한인장로교회(송영일 목사) ☎(832)215-7022
7(월)~9(수) 미국(U.S.A)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순복음지방회 연합성회
(지방회장 이선자 목사) ☎(714)220-7660
14(월)~17(목) 서울 임마누엘교회(최목은 목사) ☎(02)436-1777
17(목) 오후 한국전도훈련원(원장 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18(금) 오후 서울 소망교회(연인애 목사) ☎ 010-2711-7777
21(월) 오후 베트남(Vietnam) 호치민시 연합성회(준비위원장 정요나 선교사)
☎ 84-91-3753-183
베트남(Vietnam) 나트랑 연합성회(준비위원장 정요나 선교사)
☎ 84-83-842-1783
23(수) 오후 베트남(Vietnam) 달랏지역 연합성회(준비위원장 정요나 선교사)
☎ 84-83-842-1783
24(목) 오후 베트남(Vietnam) 호치민시 외곽도시성회(준비위원장 정요나 선교사)
☎ 84-83-842-1783
25(금) 오전 베트남(Vietnam) 비라카이대학교 성회(준비위원장 정요나 선교사)
☎ 84-83-842-1783
28(월)~30(수) 충주 금식수양관(원장 김승자 목사, 원목 고종만 목사) ☎(043)853-3990

www.hyundaisoo.com



엘빙형 명품리조트 설악 현대 쉼 리조트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지만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Only!

한국교회를 위해 - 154만원에 10년 - 이용회원권 보장

Premium Option 3, 설악 현대 쉼 리조트 회원권 구입시!!!

1. 국내 휴양단지의 새로운 기준과 모델을 제시한 쉼 제너두 M&C(황성 둔내 소재)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특전을 드립니다.
2. 전국의 38개 호텔, 워터파크, 스파시설을 회원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전국의 16개 콘도와 펜션을 회원가로 이용 하실 수 있는 혜택도 함께 드립니다.

天惠(천혜)의 東山(동산)에서 누리는 아늑한 휴식과 심신회복

2014년 여름 수련회와 가족휴가는 설악 현대 쉼 리조트와 둔내 쉼 제너두 M&C에서— 교회 수련회, 셀 모임, 각종회의 및 친목 모임에 적격 단위별(50명~100명), (3백명~5백명) 수용 가능한 강당과 세미나실 10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즐기는 가족 만한 등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이 있는 곳



(주) 현대 수 리조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14(삼성동 2층)
TEL. 02)568-6066 www.hyundaisoo.com

문의
전화

지저스타임즈 사업국(성순희 부장)
010-5468-6574 / 016-478-6574